내가 짠 판 위엔 신이 없다

(호세아 8:1~14)

1. 나팔을 네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2.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3.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4.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내가 짠 판 위엔 신이 없다>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내가 짠 판 위엔 신이 없다'
유명한 무신론자인 리처드 도킨스(Richard Dawkins)의 "만들어진 신(The God Delusion)"이라는 책에서 신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창조했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믿는 기독교와는 정반대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이 말이 틀린 것만은 아닙니다.
인생을 씨름판이나 노름판과 같은 판이라고 생각해봅니다. 자신이 판을 짜놓은 상태에서 생각하면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가 짠 인생의 판에서는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판을 스스로 짰기 때문에 그 안에 등장하는 신 또한 스스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신을 만들기가 싫다면 신이 없다고 여겨야만 합니다. 자기가 짜는 판 외에 다른 판을 생각할 수 없는 자들로서는 신 없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리처드 도킨스와 같은 입장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진정한 의미에서 기독교를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기독교의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무신론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인생의 주인으로써 판을 짜서 살아가는 가짜 기독교인들을 들추어내는 역할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허울뿐인 가짜 교인들은 이러한 무신론자의 공격을 무서워합니다.

최근에 인터넷에서 한 블로그를 보게 되었는데 "판을 바꾸자"는 제목의 글이 있었습니다.
토끼와 거북이의 동화를 다들 아실 것입니다. 느린 거북이와 빠른 토끼가 달리기 경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누가 봐도 토끼가 우세했습니다. 그러나 토끼가 잠든 사이에 끝까지 포기

하지 않았던 거북이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또 개미와 베짱이도 같은 교훈을 주는 동화입니다.

하지만 글쓴이는 이제 세상은 토끼와 거북이의 동화처럼 거북이가 이길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는 것입니다. 또 열심히 일하던 개미는 디스크로 죽고 베짱이는 가수로 성공해서 잘 살게 되는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면과 성실함이 그에 상응하는 대가로 돌아오던 산업사회에서 성공을 위해서는 거북이나 개미가 보여주던 꾸준함과 근면함과 성실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창의성과 탁월한 재능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우선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제는 능력 있는 토끼들끼리 경쟁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토끼들은 방심도 하지 않습니다. 토끼의 방심을 기대하는 거북이들에게 이제 경쟁에서의 승리는 매우 요원하고 우울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거북이는 영영 토끼를 이길 수 없는 것일까? 이에 대해 글쓴이는 몇몇 지인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거북이의 입장이 되어서 답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지인들의 대답이 여러 가지로 나왔는데 어떤 사람은 “토끼의 아침밥에 수면제를 넣겠다.”고 하였고 또 어떤 사람은 “더 강한 훈련을 하여 거북이의 한계를 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 “각각의 능력차를 고려해서 출발선에 차이를 두도록 요구하겠다.”고 대답한 사람도 있고 마지막으로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토끼를 암살한다.”고 대답한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글쓴이는 이러한 대답들 속에서 공통점을 하나 발견합니다. 바로 토끼의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토끼 콤플렉스에 사로잡혀 있다고 하면서, 관점을 달리하면 거북이가 토끼를 이기는 방법은 간단하다고 합니다. 토끼의 세상인 산과 들이 아닌 바다에서 경주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판 자체를 바꾸어 버리면 약점이라고 여겼던 부분이 오히려 타고난 재능으로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판을 바꾸자고 하니 혁명이라도 일으켜야 한다는 식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실은 내면의 문제입니다. 나를 바꾸기 위해서는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주제의식을 가지고 복음적 질문을 통해 답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관점에서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를 본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대체 사람들은 왜 바다에 잘 살고 있던 거북이를 뭍으로 끌어내어 토끼와 경주를 시키는 것일까요? 이것은 거북이에게만 해당되는 불리함은 아닙니다. 토끼가 바다로 끌려가게 되면, 이제 토끼가 바라지도 않는 경쟁을 강요받게 될 뿐입니다.

하지만 복음적 관점에서 보자면 이런 일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토끼에게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산과 들을 허락하셨고 거북이에게는 바다를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개미에게 허락하신 것은 기쁨과 즐거움이 없이 근면하게 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베짱이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놀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미는 개미대로 베짱이는 베짱이대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인간만이 하나님이 주신 판에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한 채 스스로를 부당한 경쟁의 씨름판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붙잡히는 대로 마주보는 대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판을 차지하려고 평생을 소비합니다. 그러나 본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생은 누군가를 이겨야 하는 씨름판이 아닙니다. 세상에 태어난 모든 존재는 자기에게 맞는 최적의 인생의 판을 제공받아서 살아가도록 지음 받았습니다.
본문에서 이러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북이에게는 거북이만의 판을 주셨고 토끼에게는 토끼만의 판을 주신 것처럼,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들만의 삶의 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고유의 판을 사는 대신에 풍요와 다산이라는 고정관념 속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판을 짜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기쁨과 행복은 사라지게 되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난 범죄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선민들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인류의 타락 전과 타락 후의 상태를 염두에 두면 이러한 판짜기의 성향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아담은 의식을 가지고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깨어난 아담은 하나님을 제일 먼저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만을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대상도 담겨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동산에 살게 하십니다. 아담이 살아가게 될 인생의 판을 미리 짜두신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하게 되자 상황은 완전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류는 스스로 인생의 판을 짜게 되었습니다. 주어진 모든 관계의 그물망이 의식 안에 형성되어 살아가지만 하나님만은 제외되었습니다. 타락전의 아담이 하나님만 의식했던 것과 반대입니다. 아담에게 하나님만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동산이라는 인생의 판을 제공해주셨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는 하나님만 제외한 상태에서 세상을 의식하며 살게 되었고 스스로 인생의 판을 짜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판을 짠다는 것은 곧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일과 관계에 대해 생각하고 판단하고 느끼고 소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판을 짠 다음에 이것을 이룰 수단으로 종교를 찾고 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찾는 신은 리처드 도킨스의 말대로 만들어낸 신입니다. 선민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의식 안에 관계의 그물망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이것은 만들어진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아무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결코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본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인생의 판을 짠 상태에서 만들어낸 신의 이름을 찾는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로 나타납니다. 스스로 짠 인생의 판을 뒤집어엎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 4절에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라고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선민들이 세운 왕과 지도자들을 모르실리는 없습니다. 선민들이 스스로 인생의 판을 짜며 살아가려 하였기에 하나님이 선민들에게 주시려고 했던 인생의 판들이 무산되었습니다. 모른다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지 않은 것들로 선민들의 삶이 채워지게 되었다는 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아담에게 에덴동산을 준비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본래 선민들 각자에게도 인생의 판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판을 짜는 동안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과 만족과 행복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것이 왕과 지도자를 세우는 것으로 대표된 이유는 남 왕국 유다와의 비교를 통해 명확해집니다.

남 왕국 유다의 왕조는 싫든 좋든 다윗 가문의 혈통이었습니다. 물론 악한 왕들도 있었습니다. 솔로몬에 이르러서 두 왕국으로 분열합니다만, 분열한 뒤로도 340년간 20명의 왕이 바뀌게 되는데 다윗의 후손으로써 한 왕조로 이어지게 됩니다. 한편 북 왕국 이스라엘은 분열이후에 210년간 유지되는데 19명의 왕이 나타나는데 9개의 왕조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한 가문에서 왕이 두 명씩 나왔던 셈입니다. 그런데 왕조가 바뀔 때마다 평화롭게 왕권이 이양된 적이 없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싸움과 경쟁 속에서 반란과 숙청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은 왕조의 정통성의 문제라기보다는 북 왕국 이스라엘의 선민들이 그만큼 자기만의 판을 짜기에 몰입해있었고 열정적으로 개입하고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적어도 남 왕국 유다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믿어지는 다윗 왕의 가문을 지속시킴으로써 하나님의 판을 유지하려는 최소한의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하신 인생의 판을 거부하고 스스로 판을 짜려고 하였기에 하나님께서도 '내가 모르는 바이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괴롭다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인생의 판을 살지 못하고 나 스스로 짜낸 인생의 판을 살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인생의 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개입은 이 판을 뒤집어엎으시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나팔을 네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라고 하였습니다. 나팔은 곧 전쟁으로 인한 위기가 닥쳤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또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친다는 것은 북 왕국 이스라엘에 우상숭배로 인한 심판이 주어지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인생의 판짜기가 우상숭배와 연관되는 이유는 4절 후반부의 말씀을 통해 잘 드러납니다. '그들이 또 그 은, 금으

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고 하였습니다. 리처드 도킨스의 말대로 신을 만들어 섬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스스로 짠 인생의 판에 절대로 부름 받아 등장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본문 2절을 보면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야다'의 앎이란 마음을 접촉함으로써 주어지는 느낌입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지라도 결코 이 체험적 앎에는 도달하지 못하리라는 것입니다. 결국 독수리가 병아리를 낚아채듯이 앗수르에 의해 북 왕국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될 것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스스로 인생의 판을 짜고 하나님조차 만들어진 신처럼 부르면서 결코 체험적 앎에는 이르지 못하는 판 안에 갇혀있는 상태를 뒤집어엎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벌여놓은 인생판 위에서는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아도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결혼한 부부를 예로 들어봅니다. 아내는 남편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남편은 아내를 의식하고 살아갑니다. 의식한다는 것은 곧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느낌과 소원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에 부부관계가 원활하지 않자 하나님을 의지해보기로 합니다. 본문 2절에서 북 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라고 예언된 것처럼, 하나님께 "부부관계를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판에 나의 부름을 받고 등장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관계라는 판을 뒤집어엎으시는 방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부모의 마음속에 자녀에 대한 판이 짜여 있습니다. 자녀에 대해 나름대로의 생각과 판단과 소원을 갖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단 하나의 개입은 제멋대로 만들어진 판을 뒤집어엎으시는 것뿐입니다.
인생의 모든 영역이 마찬가지입니다. 타락하기 전의 아담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처음 눈을 떴을 때 하나님과 관계했던 것처럼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짜두신 판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담을 하와에게로 인도하신 것처럼 부부관계에 개입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에 부부관계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에덴동산이 됩니다.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마음에 담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느낌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럴 때에 자녀와의 관계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에덴동산이 됩니다. 반대로 자녀를 먼저 의식하고 자녀에 대한 내 생각과 판단과 느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구한다면 그렇게 부르는 하나님은 만들어진 신입니다. 절대로 하

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시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은 자녀와의 관계를 뒤집어엎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3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선은 히브리어 '토브'로써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좋은 것은 곧 가질 때에 마음에 만족과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가졌는데 괴로움과 고통을 준다면 피하고 싶은 나쁜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선을 버렸다는 것은 선민들에게 유일하게 좋은 대상이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선민들은 아담처럼 하나님을 유일한 좋음의 대상으로 마음에 모셔 들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림으로써 스스로 인생의 판을 짜게 된 결과로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그렇게 짠 인생의 판을 엎어버리시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십자가로 향하게 합니다. 십자가 생활화는 인생의 판짜기를 중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본능적으로 인생의 판을 짜려고 합니다. 유일하게 좋은 것 되시는 하나님을 젖혀둔 채 아내나 남편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먼저 의식하고 느낌과 판단과 바람을 갖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 안되고 힘들 때에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찾는 하나님은 만들어진 신으로써 인격적인 만남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가 멋대로 짜놓은 판 위로는 오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판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판짜기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거북이가 유리한 경쟁을 위해서 바다로 판을 바꾸는 것과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십자가를 통해 내가 짜놓은 판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스스로 판을 엎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에덴이라는 인생의 판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스스로 인생의 판을 짜지 않기 위해서는 마음에 하나님을 의식함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보다 먼저 의식하고 있는 모든 관계의 그물망을 이루고 있던 세상의 대상들에 대한 죽음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배우자를 대할 때에 마음으로는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좋은 것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먼저 들어오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한 후에 배우자와 자녀를 대하고 사업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세상을 의식하지 않게 됩니다.
아담이 눈을 떠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의식하였을 때에 에덴동산을 제공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서 죽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만을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나는 모든 대상과의 관계가 에덴동산으로 바뀔 것입니다. 설령 스데반 집사님처럼 죽음을 당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깨뜨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짠 판 위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에덴동산이 제공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 자동적이고 본능적으로 인생의 판을 짜려는 내가 끊임없이 죽게 해주셔서, 오직 유일한 좋은 것 되시는 하나님만을 먼저 받아들임으로써 준비하신 에덴동산의 판을 날마다 제공받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